



... 우리의 目標 ...

- 1 在日僑胞救靈
- 2 祖国統一實現
- 3 韓日兩國和解

民族的 魔習는 속히 고치고

日本에 居住하는 使命을 認識하자

1 시간을 지키자

시간을 지켜야 하겠다는 말은 누구든지 하지만 시간을 지켜서 집합이나 회의장소에 오는 사람이 심히 적다 시간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 습관을 속히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 방법을 남이 지키진 말건 걱정할것 없이 자기만이 라도 시간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한다 다음에 주회측은 사람이 오던 아니오던 시간만 되면 시작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곤란하나 얼마 안되어서 대충은 곧 따라 오게된다 시간이란 문명 사회에서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이것을 각자가 다른 사람의 걱정 할것없이 자기 혼자만이라도 지키도록 하자 이것은 돈이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면서 시간이결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혀 시간을 절약 하는 것이다 물론 지식이나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힘도 필요없다 자기만 지키면 된다 이 단순하고 쉬운 일을 속히 오늘부터 시작하자

2 주일을 지키자

주일은 불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날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날이다 그날은 모든일을 쉬고 하나님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작한 날이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6일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일요일)에는 몸도 쉬고 집안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날의 처음의 목적이었다 그목적은 오늘날도 다름이없다 그런데 우리 교포사회에는 일본문화의 해독이 들어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생각지아니하고 도로혀 형락과 방탕의 날로 삼는 사람이있다 이것은 일본이 서양문명의 속에있는 종교성을빼고 그 형체만 받은 가장 나쁜 점이다 이러한 나쁜

점은 없애 버리자 그리고 이날에 공장이나 회사가쉬는날로 정한것은 좋으나 우리 민족 단체에서는 이날을 노는 날이라 하여서 이날에 모임이나 회의같은을 흔히 가진다 우리 민족은 사람도 한민족인 만큼 협조하고 있으나 주일날에 그런 모임을 가진다면 도저히 협력할수 없게된다 그러니 이날에 원 목적인 몸을 쉬고 동시에 마음도 쉬기 위하여서 바라는 것은 이날에 전 인류가 하나님앞에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우리 집회의 안식을 얻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나 그런분이라도 한주간에 하루는 자기를 조용히 반성하고 살피는 시간은 있어야한다 이것이 인생을 윤곽 하게 살수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부대 이날을 노는 날이라하여 회의등 모이는 날로 하지말기를 바란다

3 민족정신

민족 정신을 가지자 우리가 만대 영주권을 결사투쟁 하면서라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교포의 일상생활에는 일제나 이제 이른 아이 할것없이 민족

정신을 잃은 상태의 생활을 태반이나 하고있다 보통 회화에도 일본명을 쓰고 부른다 그사람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은가 싶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자기집 성 조차 모르게 가르치니 민족정신을 어디에서 찾을수가 있을까 이것은 민족 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문화 올바른 사회는 어느나라에가 살든지 아무리생활수준이 낮은 민족이라도 그 민족을 자랑 할수있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말로 강조하는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특수성을 다 주었다 그 특수성을 살려가는것이 민족정신 이다 그 특수성을 상실하면 그는 문화인이 아니다 그는 사회에 살 자격 조차 없어진다 사람은 다 자명이 있다 그 자명은 자기의자라난 배경을 살려서 더발전에 공헌한다 한국 민족으로 우리를 탄생케 하고 일본에 살게 한것은 어떠한 환경과 경로를 통하엿던지 그것은 우리에게 일본에 삶의 자명이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한국민족의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일본 사회에 공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민족이 일본에 살게된 목적이다

南北統一은 우리의 念願 어느사회가 幸福할 것인가 (2) 한 절 하

통일에 앞서서 먼저 우리 남한의 사회는 각 분야가 개발되어야 하며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인이 사회의 각분야에 있어서 자유롭게 독창력을 발휘하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가령 정치는 민주여론에 뿌리 박고 정리되어야 하며 정당들은 국민의 마음으로 부려의 지지를 받기에 이르러야 한다 산업은 발달되고 경제는 자립 경제를

이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경제구조도 자본이 분산되어 있어야 하며 자본과 무산의 대립이 극복되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민족 자본이 소수 재벌들의 손에 돌아나서는 안 될것이다 사회의 각분야도 중분회 개발될 뿐만 아니라 자립 상태에 있어서 독자적 존엄성이 다른 힘들에 의하여 침범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언론계를 생각하여 보



예수 전 (49) 화보

이 그림은 예수의 최후의 심판을 알면서 유대인 군중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무죄 석방을 못한 로마인인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선고를한

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군중 앞에서「내 손은 깨끗하다」는 뜻으로 물로 손을 씻는 장면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비겁한 총독이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성실성이 없었다 오직 유대인들은 반역의 절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했고 그 죄의 값을 지고 유리 결식을 하게 되었다

자 언론계는 정권이나 금력의 간섭 내지 영향을받지 않고 공정한 언론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언론에는 즉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들의 압박 내지 매수되는 일없는 자유언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계 교육계 각종 문화계 각종 학계가 다충분한 발전과 더불어 민족의 생애 뿌리를 밝게 되어야 할것이다 개발된 자유 한국사회 건설 이것만이 자유 통일의 기초와원동력이될 것이다 그리고그와 같은 자유사회의 구성은「자유」를 아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자유」를 아는 사람들이 힘써 땀흘려 노력하는 곳에 그러한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우리는「자유」를 아는 사람들이 땀흘려 봉사하는 결과로 나라날「사회」와「유토피아」사회 사상이

들의 머리 속에 있는「사회」즉「계획된 사회」와를 구별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는 각 사람이 자유롭게 봉사하는 사회이나 후자는「미래」에 대한 신화로써 인민을 속여 노예화하는「사회」인 것이다

자유사회에 있어서 육성된 각 분야는 그것이 정제든 각 산업체든 각 문화계든 종교계든 무슨 사회 단위든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의 각 분야는 기형적인정부가 일시 서더라도 이에 대하여 투쟁하여 민주화하고자 말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한국을 굳건히 건설하는 길만이 자유 통일의 길이될 것이다



信仰以前問題는 自己責任으로 天国가기 전 幸福된 生活을 찾자

매년二月三월이 되면 목사님들이 분주하신 일들을 부탁받으시는 모양이다 그 분주하신 일이란 것은 부활주일을 마친 교회행사의 고난절의 목회때문이다 아니다 교인들의 자녀를 남겨 고등학교 대학에 입학시키는 문제때문이라고 한다

생각해 보면 이런 일도 넓은 의미에서 목회인듯도 싶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 보다 먼저해야 할 문제가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자타의 반성이 요구된다 그것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자녀교육문제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을 교육하도록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그실천 여부를 목회에서 책임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작년에 작년 이

때에 다섯명의 입학 편의에 관한 부탁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소행면에서도 비난거리가 된 것이었이나 됐다 남은 둘은 녀생도인데 이중행동을 하는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했지 않느냐 하시던 할 말이 없지만……그 보다 할 일이 가정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 가족이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예배당과 예배행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게 보던 정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것은 초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보고서에 숫자로 기록되던 때에는 좋았을는지 모르나 천당과는 질적으로 먼 거리에 속하는 종류들이 아닐까 온 가족이 틀림 없이 천당까지의 약

속은 되여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들과 딸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불원에 알게될 것이다 필자는 그때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같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을지 모르나

천당도 좋지않 이 세상사는 동안 우리의 아들딸들을 바로 길러서 남에게 쓸데 없는 걱정을 지나치게

끼치지 말자는 것이외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는 신앙가정이 많으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님들의 자녀교육이 철저하셨다면 소위 신앙가정에서 비행 소년소녀가 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예배당에 출석하고 앉는것 만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 말고 참 믿음을 깨닫고 자기 책임에서 희망 높고 성실한 사언행을 하는 자녀를 기르기 바라마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중

에《너희는 나를 위하여울지 말고 나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하신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주시는 것 같다 예수님의복음을 위하여든 자기 자녀를 위해서부터 바르게 기르는 수고를 하여야 할것이다

× ×

아들과 딸을 남에게 걱정 없게치려면 어려서부터 사람다운 교육을 합리적인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노력하는 교역자로서 지도하고 부모 된자는 부모로서 노력하여야 할줄 알아 여기 기록한다 나

기독교 교육의 전망

1 기독교는 상징의 종교

기독교가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면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이상 교회는 그 깊고 높은 오묘한 진리를 다른것으로는 설명하거나 표현하기 힘든 것이고 오직 상징적인 말이나 표시로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높고 밝은 또 많은 상징을 소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상징인 십자가와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보여주는 극적인 상징으로써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기독교가 상징의 종교라고 할 만한 이유는 첫째로 위에서 말한 것 같이 기독교의 진리는 많은 상징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며 둘째로 무식한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로서의 상징을 생각할 수 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이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이러한 상징은 큰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오랜 박해 기간중 기독교도들의 암호로도 이 상징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또 이 상징들은 교회의 복음 이해의 결정으로 보기도 한다 각 시대 각 지방에서 복음을 이해한 대로 이 상징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교리사를 기독교의 상징 속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생긴 상징들은 교회의 보화가 아닐 수 없고 이 귀한 소유를 선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기독교 상징의 종류

2천 년의 교회는 계속우리의 상징을 산출하고 있어 신앙의 표현이 되고있다 역사적인 교회들이 가진 교회의 상징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① 자연의 상징

가) 빛과 불

《빛이 있으라》는 많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두신 첫 말씀이다《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빛은 생명을 주고 행복을 마련해준다 빛으로 주위가 밝아지며 어둠을 쫓는다 이빛과 아울러 불은 구약의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던 것이요 예수께서도 불을 불이려고 오신 것이다 오늘날은 작은 촛불을 쓰는데 이것은 녹아 없어질 인생의 빛을 말한다

나) 물

물이 교회의 상징으로써 여진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물은 마른 목을 축여주고 청신한 기력을 돋우어 주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주며 생물을 번성케 한다 이 물은 위시해서 여러 곳에서 쓰여진다

다) 기름

기름은 더과 칠결과 고침과 은총의 상징으로 쓰여지며 불을 비취게 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라) 소금

소금은 방부제와 보존제 조미제로서 혹은 정복자의 제전의 상징으로 쓰여진다

마) 재

재는 무가치 다수의 사망 멸망 회개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바) 향

구약의 향은 기도와 예

배의 상징으로 쓰여졌으며 아 름다운 신도의 생활을 말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상은 예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② 식물 상징

많은 식물 중에서 성서의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기에 적합한 것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리 이삭을 그려《성찬 떡》의 상징을 삼고 사과나무로 선악과의 상징을 삼고 감람나무로 칠결과 화평을 그 밖에 백합꽃 등 많은 식물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③ 동물 상징

식물과 같이 동물에서도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뱀은 마귀의교입 비틀기는 평화 양은 예수 어떤때는 신자 물고기 신자 공작과나비는 부활 그리고 독수리 사자 용등도 쓰여지고 있다

④ 글자 상징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용하여 직접 사용한 것도 있으나 맞춤 글자를 가지고 있어 이를 사용해왔다 맞춤 글자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를 하나만 들어 본다면 XP를 키르우(Chi Rho)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회람어의 대문자로 그리스도를 XPICTCO C라고 기록하였다 로마자로 S는C에 해당하며 XP는 영어의 kr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조합해 만든 글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상징이라고 할수 없으나 여기에 두어도 큰 과오는 안될 것 같다

⑤ 물체 상징

그 밖의 여러 물체를 채택한 것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배를 교회로 등잔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독교 교양으로 저울을 정의로 열쇠를 베드로 등 여러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원가이하의 판매

어느날 아침 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강단에 섰었다 그 날 아침 날씨는 흐렸고 하늘에는 몹시 구름이 끼어서 교회의 희미한 불 빛으로는 찬송가를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두번째 찬송을 부르고 있는 동안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 앞에 놓여있는 성경 위에 내리 비쳤다 그 때 나는 시인 윌리엄 쿠퍼의 아름다운시가 연상 되었다

영광이 거룩한 책장을 빛나게 하누나
장엄하기가 해와도 같구나

그 성경은 무척크고 아주 오래된 것이었으며 반질 반질한 검은 책 두께는 꽤 낡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비쳐진 햇빛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교회의 불빛이 희미하였을 때는 보지 못하였던 무엇일가를 내게 보여주었다…… 오래된 성경 책두께에는 무엇인가 쓰여진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읽으려고 머리를 숙였다 내가 본 것은《원가 이하의 판매》라는 말이었다

온종일 이 오래된 성경 책 두께에 있는 말이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않

았다《원가 이하의 판매》……이 말을 잊지않고 생각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보내주신 것 같았다 하루 일을 끝내고 외자에 앉아 있으려나 마 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원가 이하의 판매』그리고 나는 스스로 물어보았다『그러면 성경의 참다운 값은 얼마나 될까』

그 작은 교회의 오래되고 훌륭한 성경은 160원 정도로 샀겠지만 그것을 출판해 내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으리라고 나는 알고있다 그러니까 물론 원가 이하로 판 것이었으며 특별히 그 성경 뿐만이 아니라 성서공회가 출판하는 모든 성경은 거의 다 원가 이하로 책을 팔고 있는 출판사가 있는가 내가 생각 하기로는 그런 출판사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왜 성서공회는 이런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서공회가 하나님의 종이되어 세상을 섬기려는 큰목적이 있는 까닭이며 또각국에 있는 가장 가난한사람들이라도 성경을 사서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게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ノーベル賞を受けたM・L・キング牧師

マーチン・ルーサー・キングに1964年ノーベル平和賞が授けられたというニュースは全世界のキリスト者を大いに喜ばせた。

キングはラインホルト・ニーバが「われわれの時代における最高の道徳」と称した中でも、最も傑出した人物だと思われる。1955年より56年おこったこの有名なモンゴメリー・バス・ボイコット以来、彼はアメリカの二千万黒人の公民権闘争の指導者となり、「非暴力の使徒」の称号をうけた。

現在36才であるマーチン・ルーサー・キングは、今日までのノーベル賞受賞者中最年少である。彼は受賞のため12月10日、オスローに行き、総計五万四千ドルにのぼる金額を、公民権運動のためにささげるつもりだと公表した。キングはアトランタのエベネザ

ー・バプテスト教会の担任教師でありそこで生まれた。1955年、ボストン大学より、哲学博士号を受け、タイム・マガジン誌は彼を1956年の十傑のひとりにえらんだ。彼は1663年に、アトランタ育ちでボストン音楽学校卒業の若い歌手と結婚し現在、四人の子もちである。

彼は教会で一カ月の中、十日位すごし、あとは街頭に出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 ×
キングの貢献の内容を正しく評価するには米国とくに南部の黒人の実態を多少理解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以前には、黒白離れは、ミシシッピ、アトランタ、ジョージヤ、南カリフォルニアおよび南端諸州では広く行なわれていた。ニグロと白人児童の小学校は別になっていただけでなく、バス

や汽車でも隔離されていた。黒人は公園、海岸、プール、白人用の図書館やホテルの使用を禁止されていた。黒人の学校は「隔離されているが平等」すなわち、白人児童と区別されているが質的には同等であると論理的に考えられていた。しかしミシシッピのある郡では、1930年代、黒人児童ひとり当たりの教育費は1ドル、白人児童には9ドルが支払われた。最高裁の決定は有名な黒人弁護士サーグット・マーシャルが現行規則に対する反証の後、カルドゾ判事によって学校、教育の分野において「隔離されているが平等」という原則は存在しえないと宣言した。にもかかわらず、南部諸州は、この決定に遅々としてしたがらなかった。

その他、南部の顕著な特色は政治上の権利のなく奪である。ミシシッピ州では1961年には有権者の年令に達した50万余の黒人中、わずか二万五千人が登録しただけだった。教育の機会に恵まれないので、事実多くの南部の黒人は有権者に必要な教育上の資格にかけられていた。しかし多くの者は、登録前に、登録しないように注意されていたし、白人記録係の作った投票資格は不公平だったので、試験に合格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キングは「Stride toward Freedom」の中でモンゴメリー市の黒人生活水準に関して、1950年に約七万白人市民の平均収入は1730ドルであり五万黒人の平均収入は970ドルであったと述べている。判事の行政は差別的である。例えば黒人の白人婦人に対する強姦の罪は死刑であったが、白人の黒人婦人に対する強姦は罪が軽く、あるいは全く罰せられないほどであった。二年経たないうちにキングは新形式の差別反対運動に身を投じた。ニグロ裁縫師ローザ・パーク女史はバスの中で彼女の席が白人旅行者に取りかこまれるのを拒み、逮捕され、これを契機として差別政策に反対した黒人によるモンゴメリー・バスのボイコットに発展した。キングとその同僚が法廷に呼び出され、モンゴメリー市が、黒人の乗車拒否によりバスの経営上損害をうけたかどによりモンゴメリー市に告訴され、事態は頂点に達した。審理の最中に、キングはバスの車中における差別待遇は違憲だと宣言した最高裁の決定の言葉を受け取った。

1960年、アトランタに学生

非暴力調整委員会(SNCC)を設立した。それは後年、南

部の公民権闘争に重要な役割をつとめるようになった。

日本人記者のみた平和線

「こんなことをあんたみたいな若い者にいうのは気の毒だが、あんたたちがいまに日本の国をまかなうようになるんだから、よくきいておきなさいよ」老船長のたくみな日本語の口調はめづらしくきつい。「日本が韓国を思うままにしておったことよ日本は世界中の国と戦争をして、どんだん旗色が悪くなってくる。そこで、韓国の娘たちも、20才になると、報国隊になってでることになった。ところが、このたくさんの娘たちは、日本の工場で働くのではなくて、じっさいは満州や南方へつれてゆかれ、むりやり日本軍のパンパンにさせられたよ。戦争がおわって、どうやらまあぶじに生きて帰ってきた者もたくさんあるがもう二度としあわせはとりもどせない。」私の顔が真っ赤になってゆくのが自分でわかる。老船長は大きく息をついて、語りつづける。「そのころのことは、忘れろといっても、忘れられないことがいっぱいあるよ。こんなことは、いまの年とつた日本政治家たちは、よく知っていることよ自分の手でやったことだからね。」

植民地というものがある構造であるか、頭では理解しているつもりだったが、こうして私たちの父祖自身の手によって支配されてきた韓国へきて、こうしてもっと直接的に苦しめられた民衆とふれることによって、ようやく自分の問題として決定をせまられるように思われる。

昼ちかくなつて、日本の海上保安庁の巡視船からの日本語が、他の韓国漁船のよわよわしい会話をおしのけ、すごい出力で無線機から流れはじめる。——コチラハ巡視船・イスズ。タダイマカラ警報ヲ知ラセシマス。字数49字、本文、タバコのタ……「いすず」は韓国警備艇の動きをレーダーで追いつつ刻々に日本漁船団に知らせているのだ……

「日本船だよう。トロール船が二隻、底曳船が16隻以上いるよう」マストのうえから、監視中のMさんの大声がひびく。船の前方にあらわれた。水平線上の幾つかの黒点が、日本の漁船団ではあるまいかと、私たちはさきほどから目をこらしていたところだ。午後三時、場所は小黒山

内側だ。日本漁船団の影はしだいに大きくなっていく。

「あれだからかなわないよ日本船はこちらの真正面から網を曳いてくる。やつらは潮にさからって、平気で網が曳けるんだ」老船長がくやしそうにつぶやく。こちらは200馬力の船でやと潮に乗って網を曳いている状態だ。彼がくやしがるのもむりがない。日本船団の使っている網はすべて化学繊維だ。いまごろ、韓国の船のように綿糸の網を使用するものは一隻もない。綿糸では潮流の抵抗が大きく網もよく開かないうに、強度も化繊にかなわない。くわえて日本漁船にはレーダーや魚群探知機など、さまざまな設備がととのえられている。飲料水は、韓国船の20倍は積島の沖、もちろん李ラインのんでいる。それにひきかえて韓国船ときたら、すべてが日本の一時代前そのままの状態だ。これではまったく原爆と竹やりほどの差がある。この韓国側の劣勢をよいことにして、ちからでおしまくる日本漁船団の行動は、漁業以外にこれという産業をもたない韓国の国民を、日本人が想像する以上に刺戟し、その生活を圧迫し、おびやかしている。しかも李ラインの内側なのだじっさいそこで働くのは韓国漁民でなければならぬのに李ラインを越えて入ってきた日本漁船団20隻は横にひろがって、私たちの目のまえを、まったく傍若無人に活動しつづける。こわいような織滅作戦であるが、これでもまだわづか20隻だ。最盛期になると船団の規模は150から200隻にふえそれこそ、櫛で髪をすくように、根こそぎ全部の魚をさらってってしまうという韓国の漁船は網を入れる場所もなくなって、日本漁船のまわりを、ただおろおろとうろつくだけだという。

岡村著(韓国漁民の憤りと悲しみ)より。

韓国を旅行してみても

一中世的气氛に生き貧しさの中でも暗さがない
韓国人庶民の顔一

つい先ごろ、私は韓国に旅行した。貧しく、辛い生活にもかかわらず、人々の明るい表情に、うたれた。顔かたちは別に日本人と変らない。しかし、印象はまるで異なるのだ。農村の、ことに高齢の人たちの超然とした顔つきは、どうしてこんなに気品があるかと思うくらいだ。悠久の表情である。

農家の、網をかぶってまるみをおびた藁屋根が、うずくまるように身をすり合わせて並んでいる。そんなのどかな風景の中に、お爺さんたちは白い長衣、シルクハットに似た形の黒いカーツ(冠りもの)をかぶり、伝統的なスタイルでたたずんでいる。裾だけが風にひらひらとゆれている。

ながい白ひげをたくわえてまるで顔に雲がたなびいているようだ。見ていると、晴れわたった青空にそのまま溶けて消えていってしまい、白ひげだけが、かすかに浮んで残るような。……

また、ソウル市の内外で見た市場の風景、そこに群がった顔も印象的だった。

色とりどりの衣料、雑貨、食料などで、にぎやかにゴツタがえす店。その狭い道にさらに、わずかな野菜や餅、雑貨類などのかついできては

一日中すわりこんで売っている大声で叫び、笑い、しかし生き生きした顔、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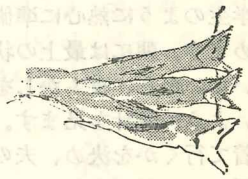
売り買いの群れがぶつかりあい、てんやわんやの中へ、平気で牛車を引っ張り込んでくるのがいる。すると大騒ぎ通りの真中に並べた籠や台をてんでに片寄せる。そして車を通すと、また、もと通り荷をならべてしまうのだ。すこしもこだわらない。まことに中世の風景である。

ひどく楽しいので、私がカメラでパチパチやっているとこちらを見て女たちが陽気に何か叫んで大笑いしている、ついでに李さんが説明してくれた。「今日は写真をいっぱいとる日だね、と言っているんです」

私が韓国に最も魅力を感じたポイントは、のびやかな大陸の気配であり、それよりもこのように彩り濃く中世的气氛が生きていることであった。

庶民たちはひどく貧しく、着ているものだって粗末だ。だが暗さがない。自分の生れたカラから抜け出そうという野心も、自分以上に見えようという気取りやポーズ、ゆがみがない、アケツピログの顔だ。そのまま充実している。

まことに、一人一人が「顔」をもっているのである。





聖書

一、パウロとシラスはテラ市で伝道していたが、占いの主人が自分の商売にならないから、パウロとシラスを投獄して看守は彼らを半殺しにした。しかしパウロとシラスはそれもめげず、熱心に祈ったり、讃美歌を歌ったりした。その時に獄の戸が開けたので看守は、囚人が皆逃げたと思ひ込んで自殺しかける所をパウロに見つけられて止められたので彼は、パウロにどうしたら救われるかと問うた。そしたら、主イエスを信ずると、あなたとあなたの家族が救われると教えてあげた。看守はその通りにして全家族が救われた。

二、もしその時に看守が自殺してしまつたら「それこそ囚人は逃げるし、家族は路頭に透う悲惨な目に会っているでしょう。しかし主の言を信じて救われたので家庭的にも皆安定した生活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一人の人が救われるという事は自分一人が救われるだけでなく、多くの人が救われるという大いなる喜びがある。人はよく、私一人くらはと思いがちである。その一人によって社会は築かれて行くし、都会は特に一人一人の力によって今日ま

神の御意志を行う

(使徒16:19~34)

西成教会 金元治 牧師

での二千もの長い歴史をつづってきたのである。

三、私の恩師でキリスト者に導いて下さった東京本郷教会の田崎健作牧師は波乱万丈の人生を送られた先生である。先生は神学生時代に女性関係で退学になり、ようやく許されて、再入学されたが成績はあまり芳しくなかったらしく、又品行も信仰の面でもあまり良くなかった。誰か牧師や伝道師に成ることを進めなければ、本人も牧師になれないとあきらめて、刑余者の世話をしていた。それが西陣教会という今にもつぶれそう教会を自分に任かせてくれたと頼みました。あまりひっこく頼むので、その教会の伝道師にした。その仕事をしている間に教会の信者がみるみる増えてきて教会堂の建築もした。それからようやく人に認められて、牧師になった。後にドイツに留学して、日本でも大きい倉敷、京都、東京本郷教会の牧師を歴任して最近では「捨て身で生きる」という本を出して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いる。神は人間一人を大事にして立派な仕事をなさる私一人もその大事な一人である。

と、跡をつけて行きました。気づかれないように、木蔭から木蔭へと伝いながら、つい

て行きました。とうとう彼は節くれだった老木の所で立ち止まりました。そして、二、三枚の枯葉を摘み取り、根元の雑草を抜いて、注意深く水をやっています。

妻は、好奇心を押え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隠れていた所から出て来て尋ねました。

「ザアカイ、あなたはなぜこんな古い木を、あれこれと世語しているの？」

ザアカイは、焼えるような献身の熱意を目に浮かべて答えました。

「忘れたのかね。これは、わたしがイエスさまを見ようとして登った木だ。ここは、わたしがイエスさまにお会いした所なのだ。」

「これこそ今日の教会、——わたしたちが救主にお会いする所です。(C、ハスモン)」



三月・カレンダー

春三月、ホットする思いになる。今日比頃、暖冬だと言えたのかも知れぬが、何型のカゼなのか？「何ヶ月も悩まされつづけられると、心のぬるむ思いがして、うれしくなる。

社会的に見るならば、上級の学校に入学なさる青年もあれば、社会人として、職場に出る青年も多くある。名実共に変化し、新しくなっていくのも「この春三月である。また教会にあって、年中行事としてはあまりにも意味のありすぎる「復活祭」を迎えねばならぬのも(今年は四月中旬)春三月と言う時である。教会は、復活祭の為に、色々な準備に入り、この三月号が発刊される頃は、もうすでにレントに入っているであろう。

敗北にうちひしがれ、明日の希望すら存在しなかった弟子達に、主が来たり給うて「平安を受けよ」との祝福に、弟子達自身が更生した様に、(ヨハネ21)私共にも、この世の今の時に、主と逢いかつ祝福を受ようと言うことである。故に色々な意味で「自然

と共に、期待の大きく多い、春三月である。

又、私共「在日韓国人にとっても「忘れることの出来ない春三月にな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う。それは「韓日会談」の事である。言うまでもなく韓国と日本の国交の正常化は私共の願いである。しかしこの正常が、何か？別な目的の為になされている様な思いがする。本当に韓国として、長い長い、相互理解と、相互交流のなかつた。韓国と日本がこの春三月に、朝は「お早よう」夜は「おやすみ」とあたりまえのことの出来る様にと、願う。しかし、あたりまえのことが、自然に出来る為に、本当に解決せねばならない問題を解決してほしいそれが為政者の良心だと思う。よもやうわさされる様な、軍事目的の為に、第三国の圧力で、韓日会談が進められているのでは、あるまい、？又私共は韓日正常の為に、経済的な多くのものが絶対的な条件になってはならない。そんな事よりも、久保田発言に対する日本の説明をもう一度聞きたい。何故なれば「高杉

発言」が存在するからだ、日本政治家はなかったと言う。しかし私は日本の政治家を、こと、この事に関しては信じていない。「ない」と言うなればさかのぼって、同じ立場で、同じ発言であった、久保田発言に対して、心ある説明を求める。私共はキリスト者として、その良心に従って求めたい、日本と言う国が、国民が、心を開いてほしい、経済的にも文化にも世界の一流国だと自認する国が、国民が、うわべだけの一流で万足なのか？、あまりにも心の問題を無視するのには、あせんとさせられる。サビだ、ワビだと言う様な、日本個々の心の問題があるではないか？今ではそれらが、茶道だけ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日本に在住する私共にも、十分に日本の心が理解出来てこそ、韓日両国の正常化は成立する

又代表部の方々にも聞く、在日韓国青年たちが、自分達の代表に逢って、自分達の意見をのべようとするのに、何故日本の警官をしてその道をはばませ最後には、韓国青年の頭まで割せるのか？

在日韓国人の理解あつてこそ、貴方方の仕事の意義が存在するのではなからうか？、一体、誰の為に韓日会談が進められているのか？理解に苦しむ。(寿)

ザアカイは出かけ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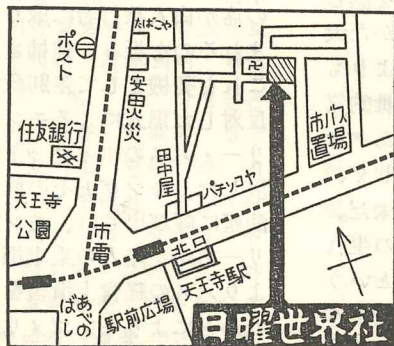
「眠りが肉体を生き生きとさせるように、礼拝は魂を生き生きとさせる」ラルフ・ワルドー・エマーソンのこの言葉は、私達が教会に出席することがどんなに必要であるかを、美しく表現しています。教会に続けて出席するには、秘訣があります。その秘訣とは、信念——出席することは神との出会いであり、初代キリスト者は暗いカタコンゲで清教徒は新世界の荒とした海岸で守ったが、今日も全世界の信者が守る礼拝であるという信念——を持つことです。

土曜日の夜、あなたは、小学生のように熱心に準備を始めます。朝には最上の状態でいたいから、夜ふかしをしないように時計を見ます。何を着て行くかを決め、夫のくつ下にはつぎが当たっているか娘のよそゆきのリボンにはアイロンがかかっているかを確かめます。朝食の準備も、で

きるだけ前もってしておけば朝になって雑用に心を奪われることもなく、神のみ前に魂を静め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主よ、今日は私自身を御手にゆだねて、あなたの歌と讃美を歌います」と思いながら目ざめることには、荘厳な喜びがあります。そしてその背後には、「常に私を愛して下さるかたを「これから礼拝しに行くのだ」という思いがあるのです。

取税人ザアカイについて古い伝説があります。それによりますと、彼の妻は毎朝自分が起きるより前にザアカイが起きてどこかに出かけるのに気づいた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こんなに早くから、いつたいどこに行くのかしら」と不思議に思って、こっそり跡をつけることにしたので、次の朝、彼女は早く目をさまし、ザアカイが家を出る

讃美歌 聖書
キリスト教圖書全般

日曜世界社

大阪市天王寺区悲田院町二八
振替 大阪一六七四電 (771) 〇九八五

聖書 讃美歌
キリスト教書籍
教会学校用品

大阪キリスト教書店

大阪市北区堂島上三ノ二九
電話 大阪 (312) 2928 番
振替 大阪 3009 番

